



지난 17일 오전 10시 전주 리원호텔에서는 송하진 도지사 및 지역내 전기·전자부품기업, 자동차융합기술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전북대, 군산대 등 30여개 산학연관 관련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전자 융합 콘퍼런스' 출범식을 갖고, 비즈니스 협력 세미나가 개최됐다.

'전기·전자 융합 콘퍼런스' 출범

도내 30여개 산학연관 참여 협업의 장 마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발전방안 논의

전북도와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지난 17일, 전주 리원호텔에서 '전기·전자 융합 콘퍼런스' 출범식을 가지고, 비즈니스 협력 세미나를 열었다. 전기·전자 융합콘퍼런스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융합기술의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기·전자부품산업을 중심으로 자동차산업 관련 융합·협업 과제를 발굴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협업의 장으로 마련됐다. 콘퍼런스에는 지역내 전기·전자부

품기업, 자동차융합기술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전북대, 군산대 등 30여개 산학연관이 참여한다. 미래형 자동차의 핵심인 전기·전자부품 전문기업을 육성, 지역내의 부품기업들과의 비즈니스 협력 모델 발굴, 산학연관 융합생태계 조성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날 자동차 전기·전자부품 중 스 위치, 릴레이 분야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IS오토모

티브를 초청, 자사의 제품개발 및 비즈니스 추진사례를 소개하고 지역내 기업들과의 비즈니스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학연연구원 이항구 선임연구원을 초청해, 전북도와 기획한 '상용차 자율주행 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전략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참석하신 지역내 전기·전자부품기업 대표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협업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가능성에 반색하며 기업차원의 노력과 협업과제 발굴 및 추진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했다. 송하진 도사는 축사를 통해 "4차 산

업혁명시대, 내연기관·제조업 중심의 자동차산업이 스마트카, 친환경차로의 변모를 위해서는 전기·전자분야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며, 산업간 융합과 협업이 필요하다"며 참여기업과 연구기관들의 협력을 강조하였으며, "전기·전자 융합 콘퍼런스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협업의 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수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기술 융합과 산업간 협업의 구체적 역할을 수행할 전기·전자 융합 콘퍼런스의 출범과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전기·전자부품산업이 전북의 미래를 열어갈 핵심산업으로 성장하는데 콘퍼런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문 대통령 지지율 73%... 두달째 70%대 유지

민주당은 46%로 정당 중 1위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의 주중 국정수행 지지율이 17일 73%를 기록하며 두달째 70%대 초반을 이어갔다.

한국갤럽은 지난 14~16일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 지지율을 집계한 결과 긍정평가 비율은 73%로 전주대비 1%p 소폭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부정 평가한 비율은 전주대비 2%p 상승한 20%였고, '어느 쪽도 아님'은 4%, '모름 또는 응답거절'은 3%였다.

지지정당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9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정의당 지지층 82%, 바른정당 75%, 국민의당 71%,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는 55%를 보였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긍정

률(26%)보다 부정률(62%)이 높았다. 문 대통령의 직무평가 긍정률은 30대에서 90%로 가장 높았다. 이어 20대 88%, 40대 81%, 50대 62%, 60대 이상 53% 순이었다.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과 동남아 순방에서 이뤄진 '정상외교 성과'와 '개혁 의지·적폐 청산'이 각각 16%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부정평가 이유 1위는 '과거사 들춰·보복 정치'(45%)가 거론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6%, 자유한국당 14%, 바른정당 7%, 국민의당 6%, 정의당 5%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주와 비교하면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2%p 상승했고 다른 정당들은 1%p 이내 등락하거나 변함이 없었다.

한국갤럽은 "전체 정당 지지 구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이번 주 자유한국당 지지도는 대선 이후 최고치"라고 분석했다. /뉴스

청년 78인 '공공기관 직무인턴' 도전 스타트

멘토 22명과 오리엔테이션

오늘부터 현장업무 체험

전북도는 지난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하반기 공공기관 직무 인턴 78명과, 공공기관 멘토 22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직무인턴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공공기관 직무 인턴은 도내 대학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들에게 전공분야의 공공기관에 배치하여 인턴경험을 통해 업무역량을 키우고 취업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을 위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다.

지난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193명이 접수했으며, 최종 78명을 공개추첨을 통해 선발했다.

또한 도내 22개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인턴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경험하

게 된다. 근무시간은 주 5일, 1일 8시간이다.

도는 인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날 행사에서는 '창의적 도전으로 나만의 길찾기'라는 주제의 청년특강과 공공기관 멘토와 멘티의 만남, 인턴 근무 매뉴얼 교육, '청년공감' 고민 소통 등을 진행했다.

이번 공공기관 직무인턴은 현장실습비 지원과 1:1 전담 멘토링 등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현장체험을 인턴활동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희숙 경제산업국장은 "전공과 연관된 공공기관의 직무체험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의미있는 결과를 얻어갈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빅데이터 활성화 도모 14개 기관 뭉쳤다

농진청·국민연금·통계청 등 협업·협력방안 모색 논의

전북도가 지난 17일, '제2회 전라북도 빅데이터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협의회'는 도내 빅데이터 관련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협업 과제 발굴 등 빅데이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구성됐다. 전북도를 비롯한 농촌진흥청, 국민연금공단 등 혁신도시이전기관과 호남지방통계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시군, 전라북도콘텐츠산업진흥원, 학계 등 14개 기관, 16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식품연구원 등은 지난 9월 전주·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이번 협의회에 새롭게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라북도 빅데이터 기본계획', 행안부의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동향', 농진청 '스마트팜 빅데이터 활용 생산성 향상모델' 사례를 공

유하고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역 내 기관들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빅데이터 사업을 협력해 나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과는 지난 8월부터 전북지역의 취업 및 실직현황, 사업체를 매월 분석하여 시군과 공유하고 일자리 지원정책 등에 활용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와는 올해 장사시설 수급계획수립, 미세먼지 원인분석

등 빅데이터 분석사업뿐만 아니라 신규과제 발굴과 공간정보를 활용한 자문 등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도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빅데이터 협의회를 통해 더욱 큰 결실을 맺으리라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디자인관련 종사자 총집합... 포럼 성료

전북도 주최, 전북 테크노파크(디자인센터) 주관으로 디자인관련 종사자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도 디자인 포럼'이 지난 17일 성황리에 열렸다.

'지역 재생과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도내 디자인관련 종사자들에게 서비스 디자인의 개념과 적용사례를 설명하고 향후 도내 서비스 디자인 확산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 부처(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국내 중소기업의 서비스 디자인 기법의

확산을 위해 2020년까지 서비스디자인 R&D 50개 과제에 총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 디자인 산업의 혁신과 더불어 서비스 산업의 영역을 확대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디자인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걸모습의 개선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 개선의 연계를 필수적이다"며 "서비스 디자인 기법 도입을 통해 디자인 기업들의 매출 증대와 함께 관련 사업의 활성화에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주교육대학교
총장직무대리 **최 경 희**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